

## “지방 노동자 주거지원과 건설경기 회복 함께 잡는다”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5천호 매입 추진

- 3개월 내 준공예정 아파트도 매입, 부분 매입 등으로 문턱 낮춰
- 지방 미분양 매입과 지방 일자리를 연계한 주거지원 모델 확대

□ 지방 노동자 주거지원과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다시 나선다.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와 한국토지주택공사(이하 LH)는 「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(‘25.8.14)」의 후속 조치로 4월 10일부터 「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차 매입공고」를 실시한다.

○ 이번 공고의 매입물량은 5천호 규모이며, 4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6주간 LH 청약플러스(apply.lh.or.kr)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.

□ 올해 5천호 매입을 위한 3차 공고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.

- ① (매입 대상 확대) 기존에는 공고일 기준 준공된 미분양 주택만 신청 가능했으나, 3차부터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준공예정 아파트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한다.
- ② (부분 매입 도입) 기존 심의에서는 신청 단지를 매입하는 경우 전부 매입만 가능했으나, 3차부터는 비선호 유형을 제외하고 일부 세대만 매입하는 방식 등으로 심의 방식을 다양화하여 심의 통과율 제고를 추진한다.
- ③ (사업자 편의성 제고) 사업자가 충분한 매도 검토를 거칠 수 있도록 접수기간을 기존 4주에서 6주로 연장하며, 사업 설명을 위해 국토부·LH는 4월 이후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여 변경사항과 매입 절차를 현장에서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.

- 한편, 국토교통부와 LH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해 지방 노동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.
  - '25년 12월 광주광역시에서는 광주글로벌모터스(GGM) 노동자 주거지원을 위해 LH와 광주시가 협약을 체결하고, LH가 매입한 GGM 인근 미분양 아파트를 GGM 노동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을 추진하는 선도 사례를 추진 중이다.
  - 이에, '25년 매입공고 후 매입 중인 아파트와 이번 3차 공고로 매입할 아파트 대상으로 지방 일자리와 연계하여 지방 노동자 주거지원에 활용하는 방식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.
-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“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이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는 것은 물론, 광주 GGM 사례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나서 지방 노동자 주거지원 등 지방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	책임자	과 장	김도곤 (044-201-4530)
		담당자	사무관	박병관 (044-201-4533)
			주무관	최수진 (044-201-4528)
담당 부서	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경기안정화지원단	책임자	처 장	성대규 (031-738-4699)
		담당자	팀 장	김승진 (031-738-4621)

**참고**

**2차 · 3차 공고 내용 비교표**

구 분		2차 공고('25.8)	3차 공고('26.4)
매입지역		수도권을 제외한 지방권 전체	
매입 대상	유형	미분양 아파트	
	면적	전용면적 50㎡ 이상 85㎡이하	
	규모	단지별 최소 20호 이상	
	준공	준공 주택	준공 또는 <b>3개월 내 준공예정 주택</b>
매입가격		LH 산정가격 이하 매도희망가격	
LH 산정가격		감정가격 × (90% ± 조정률) * 조정률은 매도희망비율, 단지규모 등에 따라 ±4%p 적용	
매입 심의	통과 방식	전부 매입	전부 매입 외에 <b>부분 매입도 허용</b>
	심의 대상	입주수요, 주택상태 및 품질 등	<b>지방 일자리 연계가 가능한 경우 주택상태 및 품질 위주</b>
접수기간/ 설명회		약 4주/ 설명회 1회	<b>약 6주/ 지방 권역별 설명회</b>